

---

# 대재해채권(Catastrophe bond) 현황과 부산 도입 검토

---

2025.11월

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.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,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
# 대재해채권(Catastrophe bond) 현황과 부산 도입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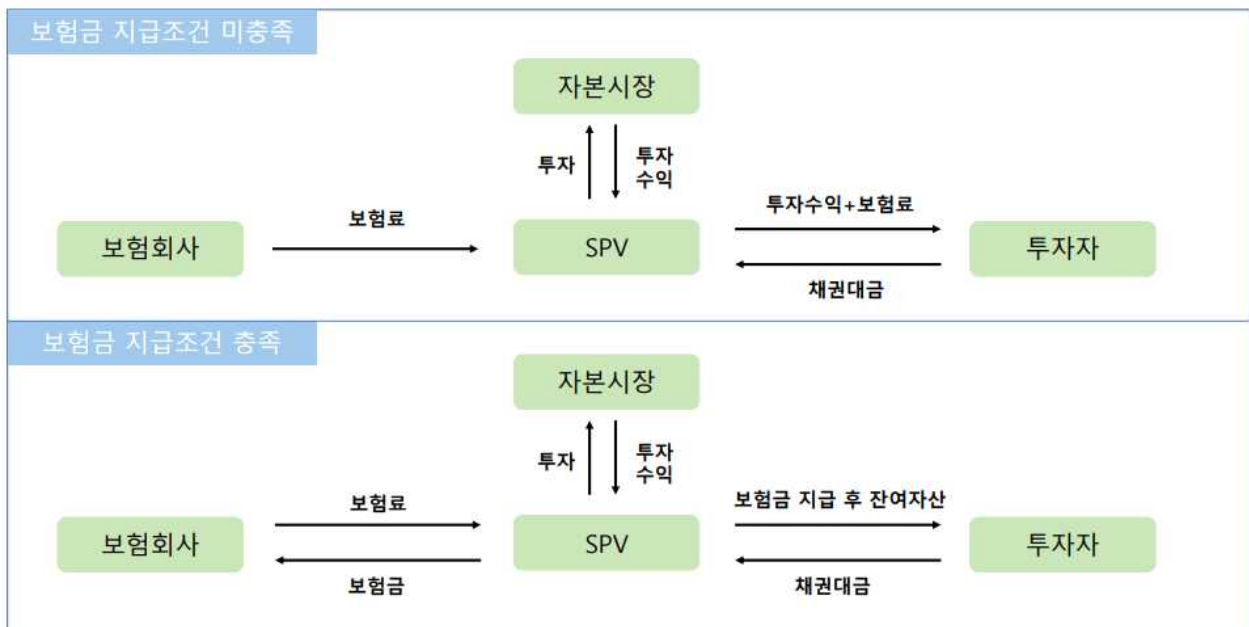
(’25.11월,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연구1실)

## 1 대재해채권의 개요

### □ 대재해채권(Cat bond)의 개념과 등장 배경

- (개념) 보험회사가 인수한 자연재해위험을 채권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새로운 위험관리기법으로 보험연계증권(ILS, Insurance-Linked Securities)\*의 일종<sup>1)</sup>
  - \* 보험사건 발생 빈도·심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금융상품(대재해채권, 장수채권이 대표적)<sup>2)</sup>
- (등장) ’92년 허리케인(Andrew)으로 미국에서 10여개의 보험회사가 파산한 것을 계기로 대재해채권 등장(’94년, Hanover Re)<sup>3)</sup>

### □ 발행 구조



<그림 : 금융투자협회<sup>4)</sup>>

1) 김혜란, '일본 대지진으로 다시 보는 대재해채권(Cat Bond)', KiRi Weekly(2011.4.18.), 보험연구원, 2011, 2p.  
2) 조영현·김혜란, '세계 보험연계증권(ILS) 시장의 성장과 과제', Kiri 리포트(2023-11), 보험연구원, 2023, 1p.  
3) 정기영·박성우, '국내의 재해보험 제도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', BOK이슈노트 2021-4호, 2021, 19p.  
4) 임웅진, '캐트본드 소개 및 시장 현황', 금융투자(178호), 금융투자협회, 2017, 19p.

○ 구성요소별 역할<sup>5)</sup>

- (재)보험회사 : SPV를 설립하고 초과위험과 관련된 보험료(자산)·보험금(채무)을 SPV에 이전하여 담보력 확충
- SPV(특수목적법인) : 대재해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과 (재)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(일반적으로 담보신탁 방식)  
→ (보험 사고 미발생)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  
(보험 사고 발생)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, 투자자에 보험금 제외한 잔액 상환
- 투자자 : 위험 담보 주체(대형 연기금, 대재해채권 전용투자펀드, 뮤추얼펀드 등)
- 이외에 객관적 신용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신용평가사, 증권사를 비롯한 채권발행 주관사 등의 역할도 중요

□ 대재해채권 도입에 따른 효과

- (보험회사) 자본시장을 통해서 담보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, 재보험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에 대비 가능
- (투자자) 새로운 투자상품의 추가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발생
  - 다만,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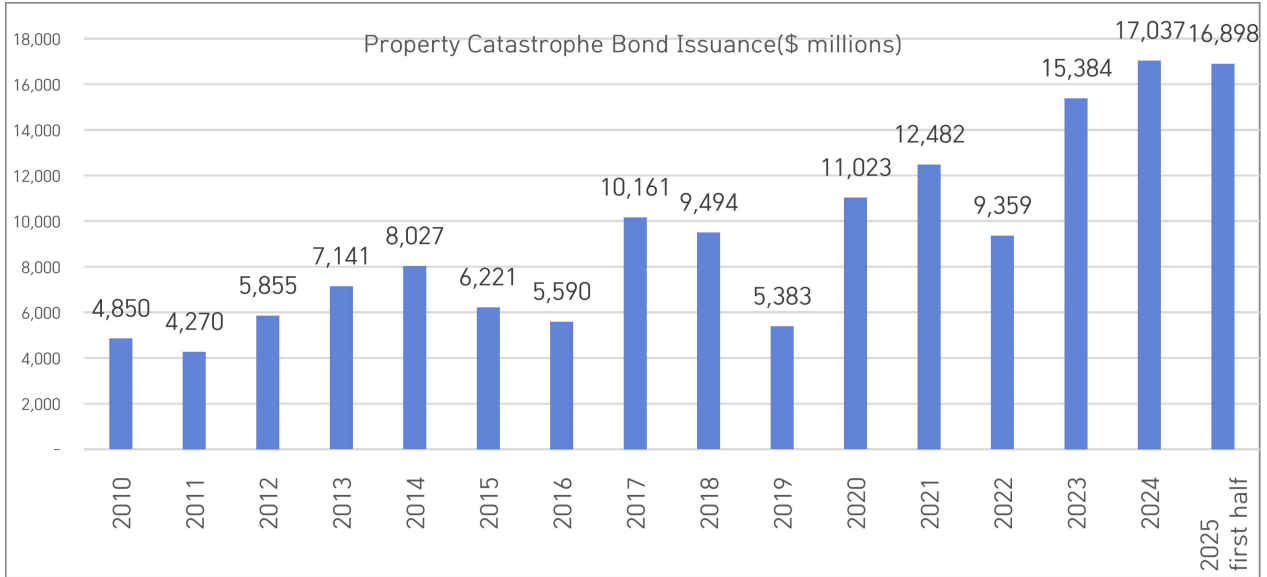
## 2 국내외 현황

□ 글로벌 대재해채권 시장의 성장

- 대재해채권 발행 증가 추세 지속
  - 발행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'25년 상반기 170억 달러에 가까운 발행 규모를 기록하여 6개월만에 '24년 발행 총액에 육박하는 규모 발행<sup>6)</sup>

5) 이윤재, '보험연계증권(ILS)의 이해와 투자 활용', KB 지식 비타민(2015-99),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, 2015, 2~6p.

6) AON, ILS Annual Report, 2025, 1p.



<자료 : AON(2025)>

- 대재해채권의 최대 발행지는 버뮤다(41개)이며 싱가포르(5개), 케이먼 군도(3개), 아일랜드(2개), 영국·미국·홍콩(각 1개) 등이 뒤를 이음('21.7월~'22.6월 기준)<sup>7)</sup>

#### □ 해외 제도 정비 사례

- ILS를 발행하는 SPV에 대한 규정 마련
  - 버뮤다는 ILS 발행을 지원하고자 '08년 보험법 개정(안)을 통과시켜 SPI(특수목적 보험회사) 유형을 신설하여 SPV 설립 절차 명료<sup>8)</sup>
  - 후발주자인 홍콩은 '20년 보험법을 개정해 특수목적보험회사를 보험회사 범주에 추가하고 최소자본 요건을 부여<sup>9)</sup>
-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노력
  - 싱가포르는 보조금을 통해서 대재해채권 발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도입<sup>10)</sup>
  - 홍콩 역시 ILS 발행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적 보조금 사업 시행<sup>11)</sup>

7) AON, ILS Annual Report, 2022, 8p.

8) ARTEMIS, 'Bermuda amends Insurance Act to help ILS issuance', 2008.7.10, <https://www.artemis.bm/news/bermuda-amends-insurance-act-to-help-ils-issuance/>.

9) 김유미, '홍콩, 보험연계증권(ILS) 활성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', Kiri 리포트(2020.06.08), 보험연구원, 2020. 2p.

10) MAS(2025.11.18), Insurance-linked Securities Grant Scheme,

11) IA(2025.11.18), Insurance-linked Securities.

## □ 국내 제도 현황

- 한국은 대재해채권 제도가 미비한 상태
  - '14년 금융위가 대재해채권 도입을 검토할 것을 발표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
- 국내 재보험사의 발행 수요는 존재
  - '23년 코리안리가 하노버리를 통해 대재해채권을 발행한 사례 존재<sup>12)</sup>

## 3 국내 도입 필요성

### □ 보험사·재보험사의 위험 분산

- 대재해 발생시 나타나는 막대한 피해가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방지
  - 대재해는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자본 시장 전가를 통한 위험 분산으로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파산을 방지할 필요
- 정부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
  - 정부 재정을 통해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해 재해 관련 재정 지출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에 리스크 전가 가능<sup>13)</sup>
  - 장기적으로 대재해채권 도입에 따라 재해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 감소

### □ 새로운 투자 수단 제공

-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기회 제공
  - 전통 자산군이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도 강한 회복력 보이며, 연속적 두자리 수 수익률('24.7월~'25.6월 11.8%, '23.7월~'24.6월 13.1%) 기록해 높은 수익 제공<sup>14)</sup>

12) 서지연, '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"2027년 해외 수재 50% 목표...자산운용은 큰 숙제"', 이투데이, 2023.09.18., <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284855>.

13) 임웅진, '갯본드 소개 및 시장 현황', 금융투자(178호), 금융투자협회, 2017, 31p.

14) AON, ILS Annual Report, 2025, 13p.

○ 분산 투자를 위한 새로운 옵션

- 주식·채권 등 기존 자산군의 변동과 대재해위험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강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제공

□ 재해로 인한 위험성 심화

○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해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

- '24년 허리케인 헬렌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3,200억달러(약 467조원) 규모의 손실을 기록<sup>15)</sup>

(단위 : 10억 달러, 명)

구분	30개년 평균 (‘94~‘23)	10개년 평균 (‘14~‘23)	5개년 평균 (‘19~‘23)	‘23년	‘24년
전체 손실	181	236	261	268	320
보험 손실 (Insured losses)	61	94	106	106	140
사망자(추정)	42,000	17,500	23,000	77,600	11,000

<자료 : Munich RE(2025)>

- 기후 변화로 인한 보험회사 손실 증가가 보험회사 파산 등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

○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

- 태풍·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	‘23년
인명피해	48	75	42	64	140
재산피해	2,162	13,182	661	5,927	9,582

<자료 : 2023 재해연보<sup>16)</sup>>

- 이미 국내에 역대급 폭염(‘24년) 등 이상기후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증가에 대비 필요

15) Munich RE, ‘Natural disasters in 2024’, 2025, 1p.(아래 표 2023년 이전 금액은 인플레이션 조정된 금액)

16) 행정안전부, 2023 재해연보, 16-17p.

### □ 대재해채권 도입을 선도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 전략 보완

-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에 앞장서는 선도자로서의 위치 확보
  - 서울과 차별화가 되는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갖출 필요
  - 대재해채권 도입을 시작으로 해외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표준 절차 수립 및 확산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선제적으로 도입 필요
- 부산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상품으로 발전
  - 해안 도시이므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·해일 등 기후리스크 대비 필요
  - 재해에 따른 보험사 손실 리스크를 대재해채권을 통해 분산시켜서 기후 위기로 인한 지역 보험 시장 위축 방지

### □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금융 기반과의 시너지 창출

- 부산의 ESG 금융 기반을 활용
  - 대재해채권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분산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어 녹색 금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온 부산 금융중심지의 방향성에 부합
  - 금융 공기업 집적으로 ESG 채권 발행 경험을 축적한 부산의 역량을 대재해채권 발행에 활용
- 디지털금융·해양데이터 기반 고도화
  - 대재해채권 토큰화 등을 추진하여 부산의 디지털 금융 특화 전략과 시너지 창출
  - 부산의 해양 데이터 역량\*을 대재해채권 모델 고도화에 활용
    - \*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개설 등 데이터 기반 해양신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며, 해양관측위성 부산샷(BusanSat)을 통해 해양데이터를 수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<sup>17)</sup>

17) 부산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홈페이지.

## □ 대재해채권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

-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ILS를 발행하는 SPV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
  - 버뮤다·홍콩 사례와 유사하게 보험업법을 개정해 특수목적보험회사(SPI) 제도를 신설하고,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설립을 활성화
- 정교한 대재해채권 모델 구축과 보험업계 역량 강화
  - 정교한 대재해채권 리스크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기상청과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확보와 기후 시나리오 변화의 빠른 반영이 필수적
  - 빅데이터·AI를 적용해 위험도 추정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
  - 장기적으로 금융, 기후, 통계 지식을 함께 갖춘 융합 인재 양성 필요

## □ 부산 도입을 위한 방안

- (방안 1)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대재해채권 부산 발행 유치
  - 금융중심지 또는 (금융)기회발전특구에서 대재해채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보험회사(SPI)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을 신설(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 - 대재해채권 발행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유형에 추가하고, 부산 소재 신탁사에 SPI의 자산을 신탁할 것 등을 요건으로 지정(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)
- (방안 2) 부산 시민을 위한 재해보험 설계
  - 부산시가 중앙정부 및 부산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매칭 펀드 형태의 보험료 재원을 조성해 재해 보호 대상 시민이 가입하는 형태의 재해보험을 설계
  - 이러한 재해보험의 담보력 확충을 위해 SPI를 통한 대재해채권 발행